



데이콤

데이콤 천리안, 11월초 가입자 20만 돌파 예정

지난 85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데이콤의 PC통신 “천리안”이 11월초 유료가입자 20만명 돌파가 예상된다. 93년 10월 국내 최초로 유료가입자 10만명을 돌파한 천리안은 현재 19만8백48명이 가입해 있어 내달초 20만명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데이콤은 12월 15일까지 2개월간 가입자 20만명 돌파 기념 사은행사를 갖는다. 사은행사에서는 20만번째 가입자와 최우수 이용자, 최우수 동호회 등을 선정해외 컴퓨터업체 견학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공개자료 공모전”, 온라인 “천리안 모델 선발대회” 등이 열린다.

하이텔

하이텔, 월간 이용건수 3천만건 돌파

한국통신의 정보통신서비스인 하이텔이 지난 92년 7월부터 유료서비스에 나선 지 2년만에 한 달 이용건수 3천만건, 제공메뉴 1천여종에 각각 달하는 등이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통신(KT)이 발표한 “하이텔 이용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하이텔서비스 이용자는 지난 92년의 유료서비스 당시 20만명에서 61만명으로 3배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제공 메뉴의 종류도 지난 92년 1백20종에서 2년만에 1천37종으로 8배이상 증가했으며, 이용시간도 2백 44만시간으로 3천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제공 테이터베이스(DB)별 이용건수에 있어서는 하이텔이 전체의 46.9%인 1천4백57만건으로 가장 많고, 나우콤과 인디텔이 43.1%인 1천36만건, 기타 50여개

의 데이터베이스가 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하이텔서비스에 접속한 정보제공자(IP) 수도 92년 83개업체에서 2년만에 4백80개 업체로 5배이상으로 증가했으며, 이용자당 접속시간도 평균 7분30초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통신측은 이처럼 하이텔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 공공정보에서부터 각종 생활정보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구축됐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에이텔

에이텔, 700번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실시

전화 한 통화로 증권, 일기예보, 프로야구, 운세 등 각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한국통신의 700번 서비스는 그 종류만해도 현재 2천여개가 넘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PC통신을 통해 원하는 음성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 에이텔(대표 김대규)의 포스서브는 11월 1일부터 한국통신에 등록된 9백여개의 "700전화정보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DB통신과 공동으로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서울, 경기, 부산을 비롯 전국의 700번서비스를 망라하고 있으며 뉴스, 경제, 교육, 건강 등 분야별 검색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처음 화면에서 분야별 검색을 선택하면 13가지 종류별 메뉴가 나오고 이중 뉴스항목을 선택하면 법률, 세무, 교통, 부동산에 관련된 음성정보서비스 제공업체의 명단이 일목요연하게 나온다. 이중 원하는 업체를 선택하면 해당업체의 전화번호, 요금, 서비스내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700번 서비스 제공업체는 모두 4백20여개고 제공서비스

종류는 2천1백여개에 이르고 있다. 이중 삼보정보통신의 시사영어, 시사일본어 등 교육관련 서비스가 5백17개로 가장 많고 건강, 경제, 운세 순으로 이용빈도가 높다.

시스템공학연구소

SERI, 차세대컴퓨터 SW 국제공동연구 본격 추진

차세대 컴퓨터 소프트웨어(SW)의 주력제품이 될 분산처리진단 및 교정시스템과 개방형 메시지 처리시스템이 국제공동연구사업으로 올해말부터 본격 추진 된다. 시스템공학연구소(SERI)는 세계적인 무정지형 컴퓨터(플트 터러런트 시스템)전문업체인 미국 텐덤사와 텐덤의 국내 대리점인 한국컴퓨터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분산처리 및 교정시스템(SPIFF 프로젝트)과 개방형 메시지 처리시스템(JANUS 프로젝트)을 3년간 공동개발키로 합의하고 연구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말부터 오는 97년까지 3년동안 계속될 이번 프로젝트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텐덤사가 연구개발에 따른 자금을 공동으로 출연하고 11명의 SERI 연구원들이 3년동안 텐덤에 파견돼 소프트웨어의 요구분석에서 상품화에 이르기까지 텐덤의 연구원들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주도해 개발한 부분은 한국측이, 텐덤의 주도하에 개발된 부분은 텐덤이 각각 소유권을 행사하고 양측 기여분에 대한 기술료는 쌍방이 서로 상대방에게 지불하도록 돼있어 국제공동연구사업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SERI는 이번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선진국들이 기술이전

을 껴리고 있는 첨단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이 이루 어짐으로써 향후 이 분야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 하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텐덤의 컴퓨터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게 돼 국내 소프트웨어제품 및 기술의 수출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는 분산 처리진단 및 교정시스템은 이기종 간 클라이언트서버 및 분산처리환경을 자체 진단 하고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툴이며, 개방형 메시지 처리시스템은 전자우편의 보편화에 따른 이기종간 호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첨단제품으로 오는 97년 각각 30억달러, 20억달러의 방대한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주력소프트웨어다. 지난 74년에 설립돼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텐덤사는 무정지형 컴퓨터, 개방형 병렬처리시스템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 포천지가 선정한 5백대기업에 포함돼 있는 세계적인 컴퓨터전문업체이다.

특허청

LCD분야 기술공유 계약후 특허출원 급증

브라운관 및 LCD생산업체간의 기술공유계약 체결 이후 이 분야의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브라운관 및 LCD생산업체인 삼성전관과 금성사의 지난 92년 기술공유계약 체결 이후 이같은 산재권출원의 급증세가 나타나고 있다. 특허청은 이 분야의 계약이 체결되고 2년이 지난 금년 7월까지 브라운관의 관련기술특허·실용신안 출원동향을 분석한 결과 계약체결 전인 90년 8월부터 92년 7월까지 2년동안 2천1백56건이 출원되었으나 계

약이 발효된 92년 7월 이후 올 7월까지 2년동안에는 3천7백9건이 출원되어 계약체결 이전과 비교해 72%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중 전체 기술분야의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이 4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기술공유계약이 체결된 표시장치분야의 출원은 전체 기술분야에 비해 출원증가율이 1.8배 늘어난 것이다. 이 분야 특허와 실용신안의 출원비율은 계약체결 전 2년동안 특허 8백 96건, 실용신안 1천2백62건이 출원되어 특허출원이 전체 표시장치분야의 40%를 차지했으며 전체출원에서 특허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약체결 이전에 비해 약간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에 일본실용신안 공보 제공

특허청은 일본의 등록 실용신안 공보를 CD롬 및 책자형태로 일반인에 공개, 열람 및 복사가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일본 실용신안의 열람·복사는 책자형태로 된 등록 실용신안 공보 프론트페이지집을 참고로 전문이 필요할 경우 CD롬 형태의 자료를 열람·복사하면 된다. 등록실용신안공보에는 서지적 사항, 실용신안 등록 청구범위, 도면의 간단한 설명, 고안의 상세한 설명 및 고안의 효과 순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주간으로 발행되고 있다.

특허청은 올 7월까지 등록된 실용신안 공보를 확보해 민원인의 열람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문의 (02) 568-6078

공업진흥청

공진청, ISO 9000규격 전면 개정키로

국제품질보증체제 심사 기준인 ISO9000이 전

면 개정된다. 공업진흥청에 따르면 지난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ISO규격제정위원회(SIO/TC 176) 총회에서는 현행 ISO9000 규격이 기업의 품질 시스템 개선에 미흡하다는데 의견을 같아하고 앞으로는 94년 개정판을 잠정적으로 사용하는 한편 ISO9000을 혁신적으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국제ISO규격제정위원회가 합의한 기본 개정방향은 ISO9000의 품질요건을 전산업체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일반화하고 중소기업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명백히 한다는 것으로 돼 있다. 또 공정순으로 요건을 마련하되 ISO9004규격에 말씀드리지상, 템파크, 유럽품질상등 주요 품질상의 요건을 추가해 선진화된 품질 경영 규격을 만들어 이를 페이스Ⅱ로 명명 키로 했다. 이 위원회는 이와함께 전세계 기업의 90%가 중소기업임을 감안, 중소기업의 ISO인증 획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ISO9000 가이드 북”을 발행키로 했다.

통계청

통계정보 수집관리 일원화 추진

통계청은 국가통계의 제도적 발전과 통계의 효율적 작성을 위해 주요 조사통계는 통계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계청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정부의 정책수립과 기업활동의 국제화에 따른 국제통계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통계 정보중 기본통계의 수집 관리와 보급기능을 통계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또 각급 기관에서 분산, 작성되고 있는 통계정보의 일괄수집과 관리가 시급하며 수집된 모든 통계정보를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고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데이터시스템

삼성어린이박물관 첨단운영시스템 개발 계획

삼성그룹은 서울 잠실동에 건립중인 삼성어린이박물관에 10억원을 투자, 학습용 멀티미디어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삼성데이터시스템이 개발하게 될 이 시스템은 *3차원 입체도자기를 형상화하는 “도자기만들기”*어린이의 얼굴을 호랑이등으로 변신시키는 “변신”*터치스크린을 이용한 “낙서판”과 “동화색칠 하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컴퓨터로 얼굴을 보며 전자펜으로 통신하는 “컴퓨터통신”과 3차원 도형을 컴퓨터로 조립하는 “물체조립” 등 9개의 멀티미디어로 구성된다.

금성정보통신

수출형 교환기모델 스타렉스 - IMS 개발

금성정보통신(대표 정장호)은 최근 수출형 교환기모델인 스타렉스-IMS의 기능과 성능을 대폭 강화한 “스타렉스-IMSAPR”을 개발했다. 기존 시스템에 비해 용량이 3배 이상 증가된 이 시스템은 최대 1만4천1백12회선까지 증설할 수 있으며 무인 운용되는 원격 교환장치를 설치한 교환기로도 운용될 수 있다. DB